

‘교회의 본질론’과 ‘교회론의 다양한 주제들’ 다시 읽기?: 칼빈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 중심으로*

최성렬**

국문 초록

본 논고는 ‘교회의 본질론’과 ‘교회론의 다양한 주제들’을 칼빈의 “그리스도와의 연합”(Únio cum Christo)과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Union with the Triune God) 사상 관점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칼빈 신학을 통해 교회의 신뢰 회복이나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실천론적 접근을 구체적으로 다루려는 것은 아니며, 반면에 ‘교회의 본질’과 ‘교회론의 다양한 주제들’에 관한 칼빈의 이해를 통해서 교회 변혁을 위한 그 근본적인 하나의 ‘신학 원리’를 제안하려는 의도이다.

칼빈의 교회론 안에는 교회의 본질론뿐만 아니라 성례론, 예배론, 기도론, 직분론, 권징론, 교회 일치론, 그리고 성도의 교제론(koinonia) 등 다양한 신학적 주제들이 다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신학적 주제들은 그의 신학 안에서 다름 아닌 ‘그리스도와의 연합’ 또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 사상과의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서 이해와 해석되고 있다.

교회론과도 긴밀한 연관성을 가진 그 “연합” 사상이 칼빈 신학의 하나의 “중심 교리” 또는 “핵심 사상”이라는 주장은 최근의 흥미 있는 한

• 논문 접수일: 2026년 1월 7일

• 논문 심사일: 2026년 1월 27일

• 논문 수정일: 2026년 2월 3일

• 게재 확정일: 2026년 2월 5일

*본 논문은 ‘제49회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 정기 학술 대회’ 발표 논문을 수정, 보완, 확대한 글이다.

**Alphacrucis University College, 부교수/조진신학

신학적 논쟁점 중 하나이다. 그 논쟁의 찬반론은 상호 간의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여전히 현재 진행형 상태에 있다. 칼빈의 신학 안에서 가장 빈번하게 그 연합 사상과의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서 다루어지고 있는 교리 중 하나는 다름 아닌 교회론이다. 그런 관점에서 본 연구의 방법은 '교회의 본질론'과 '교회론의 다양한 주제들'을 칼빈의 그 연합 사상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이해하고 해석하고자 시도한다. 한편, 보다 체계적인 분석과 해석을 위해 그의 신학의 요약본이라 할 수 있는 『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그 연구의 범위를 제한한다.

본 논고는 교회의 본질, 기능, 그리고 역할을 다루는 다양한 신학적이고 실천론적인 연구들에 하나의 '신학적 원리'와 '연구 방법'에 관한 실마리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한국 교회의 대사회적 신뢰 회복이나 위기 상황 극복과 관련된 실천론적인 연구를 위해서도 본 논고의 연구 방법이 하나의 근본적인 신학적 원리의 단초를 제시할 것으로 희망한다.

주제어: 칼빈의 교회론, "그리스도와의 연합" (*Unio cum Christo*),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 (Union with the Triune God),
『기독교 강요』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 들어가는 글: 문제 제기

한국 교회의 위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만연되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엄연한 현실이다. 2023년 기독교윤리 실천운동 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4%가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¹⁾ 이 수치는 불과 3년 전인 2020년의 같은 조사의 수치인

1) 조성돈, 김진양, 신하영, "2023년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여론조사 결과 자료집」 (2023년), 13.

64%보다 더 높아진 결과를 보여 주었다.²⁾ 그 이전에 비슷한 조사에서도 대사회적인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주요 종교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³⁾ 그것과 맞물려 교회 구성원들, 특히 청소년과 청년들의 이탈도 가속화 되어가고 있다.⁴⁾ 결국 한국 교회는 내외부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⁵⁾

그동안 그런 교회의 위기 형국을 치열하게 분석할 뿐만 아니라, 극복 방안을 모색하는 신학적, 윤리적, 교육적, 그리고 목회적 차원 등 다양한 접근의 연구들이 있었다. 그 연구 유형 중에 사회봉사와 섬김, 그리고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한 교회의 대사회적 신뢰 회복을 제안하는 주장들도 있었다.⁶⁾ 현대 문화에 대응하는 방식과 함께 목회자의 도

-
- 2)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 편 (서울: 기윤실, 2020), 10-11.
 - 3) 김병연,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목적, 방법론과 결과,” 「2008년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발표 세미나」,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 편 (서울: 기윤실, 2008), 36.
 - 4) 신승범, 이종민, “기독교 청년들의 교회를 떠나고 싶은 이유에 관한 질적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제66집 (2021년 6월): 274-276.
 - 5) 한승돈, “교사 예수(디다스칼로스)의 가르침, 그의 교훈(디다케)의 산상수훈 프락시스를 통한 한국교회 방향 설정,” 「신학과 실천」, 제87집 (2023년 11월): 811-841. 무종교자의 한국교회 신뢰도에 관한 2023년 여론 조사 결과는 2022년 4월 국민일보가 의뢰한 지앤컴리서치의 조사 결과에 비해 약 4%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한국 교회 신뢰도가 2022년에는 6.6%이고 2023년은 10.6%임을 고려하면, 무종교자 거의 10명 중 9명은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전히 매우 낮은 수치 결과이다.
 - 6) 현유광, “침체된 한국교회의 활력회복 방안에 관한 연구 - 교회당 문턱은 낮추고, 교회 문턱은 높여라!,” 「복음과실천신학」 제33권 (2014년 11월): 224-261; 황금주, “푸드테라피를 통한 사회선교와 그에 따른 교회의 신뢰도 회복 방안 연구,” 「선교신학」 제80권 (2025년 11월): 375-401; 최무열, “한국교회의 위기 극복과 대사회적 신뢰성 회복 방안으로서의 디아코니아 활용에 관한 소고,” 「신학과 실천」 제47권 (2015년 11월): 519-549; 강병오, “한국 개신교의 사회적 신뢰 실추 원인과 대책,” 「신학과 선교」 제41권 (2011년 11월): 61-84; 김남석, “한국교회 공공성 회복을 위한 목회신학 연구: 목회자의 공적 윤리식 고양의 필요성과 과제를 중심으로,” 「신학연구」 제70권 (2017년 6월): 155-181; 정원범, “존 하워드 요더의 관점에서 본 한국교회의 신뢰도 위기와 그 대안,”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100집 (2016년 4월): 195-226; 남

덕성 회복을 통한 교회의 신뢰 회복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연구들도 있다.⁷⁾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기독교 윤리학이나 공공 신학적인 영역에서의 접근 시도였다. 한편, 교육을 통한 교회의 신뢰 회복 방안을 제시하는 기독교 교육학적인 접근으로서의 연구들도 있다.⁸⁾ 신학적 자아 성찰과 반성, 신학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그리고 공적실천신학적인 교회개혁 등을 통한 교회의 신뢰 회복을 다루는 연구들도 있다.⁹⁾ 이러한 유형의 연구들은 교회 회복을 위한 다름 아닌 실천적인 원리와 접근을 모색하는 시도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런 한국 교회개혁을 위한 신학적 반성과 방안 연구 접근은 칼빈 신학 연구들을 통해서도 시도되었다. 구체적으로 황대우와 김요섭 등은 한국 교회의 개혁을 위해 다름 아닌 칼빈 신학의 원리를 가지고 그 대안으로 제시하였다.¹⁰⁾ 그 연구들은 칼빈이 추구한 성경 중심의 원리

태욱, "21세기 한국교회 갱신을 위한 윤리적 과제: 2008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 조사를 중심으로," 『성경과신학』 제53권 (2010년 5월): 171-201.

- 7) 신원하, "초월과 진리, 주변에서 중심으로: 한국 교회 위기의 본질과 극복을 위한 신학 윤리학적 분석," 『기독교사회윤리』 제26집 (2013년 8월): 179-215; 용환규, "한국교회 정체성 회복을 위한 목회패러다임의 전환," 『복음과실천신학』 제35집 (2015년 4월): 225-251.
- 8) 성호숙,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한 기독교 인성교육에 관한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제56집 (2008년 12월): 369-402.
- 9) 박현신, "포스트코로나 시대 교회의 위기와 대안적 방향: 실천신학적 조망을 중심으로," 『복음과실천신학』 제65권 (2022년 11월): 261-301; 양병모, "한국교회가 직면한 문제의 목회신학적 대응방안: 거시적 요인과 목회패러다임을 중심으로," 『복음과실천신학』 제50권 (2019년 2월): 172-211; 최광희,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 회복을 위한 설교 비평 연구," 『복음과실천신학』 제69권 (2023년 11월): 133-158; 신문귀, "마르틴 루터의 십자가 신학에 직면한 한국교회," 『신학과목회』 제49권 (2018년 5월): 185-219; 정희완, "신학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성찰: 한국적 사회참여 신학을 위하여," 『신학전망』 제177권 (2012년 6월): 146-195; 장신근, "공적실천신학으로 본 한국교회의 현실과 개혁과제," 『장신논단』 제51권, 제5호 (2019년 12월): 247-275.
- 10) 황대우, "칼빈의 개혁 원리와 한국교회 개혁: 성경의 원천으로 돌아가자! (*Ad Scripturae fontes*)," 『장신논단』 제51집, 제1호 (2019년 3월): 93-119; 김요섭, "교회

에 따라 교회의 실제적인 내부적 문제 요소 분석과 개혁 방안 등을 다루고 있다. 그 연구들이 칼빈 신학의 원리를 통해 실천적인 접근으로 교회의 개혁적 요소를 다룬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뜻깊은 시도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은 칼빈 신학을 통해 교회의 신뢰 회복이나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실천론적 접근을 집중적으로 다루려는 것이 아님을 서두에서 밝힌다.¹¹⁾ 반면에 ‘교회의 본질’과 ‘교회론의 다양한 주제들’에 관한 칼빈의 이해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그 이유는 교회의 본질 이해가 곧 교회개혁을 위한 근본적인 신학 원리의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에서이다. 그런 관점에서 본 논고는 ‘교회 본질론’과 ‘교회론 안에 있는 다양한 주제들’을 칼빈의 “그리스도와의 연합”(Únio cum Christo) 사상 중심으로 다루려고 한다.¹²⁾ 칼빈의 그 “연합 사상”¹³⁾이 교회의 본질과 교회론 안에 있는 여러 주제들 이해에 중요한 신학적 의미들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 접근의 이해는 한국 교회가 어떤 교회 자화상을 가지고 개혁적 운동을 전개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신학적 원리를 제공하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10) 황대우, “칼빈의 개혁 원리와 한국교회 개혁; 성경의 원천으로 돌아가자! (*Ad Scripturae fontes*)”, 「장신논단」 제51집, 제1호 (2019년 3월): 93-119; 김요섭, “교회 개혁 원리로서의 오직 성경으로(*Sola Scriptura*): 교회의 교리제정 권세에 대한 칼빈의 이해 연구”, 「신학지남」 제82권, 제4호 (2015년 12월): 181-215.

11) 그러한 실천론적 유형의 논문들은 앞서 소개한 것처럼 이미 지속적으로 발표되어 오고 있기 때문이며, 본 논고는 그런 실천적 연구에 하나의 독특한 신학적 방법과 원리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기 때문이다.

12) 본 논고에서 교회 본질론을 다룰 때 칼빈의 “그리스도와의 연합”(Únio cum Christo) 뿐만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 사상 중심으로도 다룰 것이다. 그 두 연합 사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 논고 제 III 장 제3항목을 참고하라. 그러한 연구 방법과 접근은 다른 논문들과 차별화된 본 논문이 지닌 독특성과 창의성을 밝힌다.

13) 우리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은 이하 “연합” 사상이라는 줄임말로 표현한다.

칼빈의 그 “연합” 사상과 교회의 본질론 간에 어떤 독특한 신학적 연관성과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 ‘교회론 안에 있는 다양한 주제들’ 이해에 있어서 칼빈의 그 “연합” 사상 중심으로 접근하여 다루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신학적 의미를 제공하는가? 이러한 연구 질문들을 가지고 본 논고는 교회의 본질론과 교회론의 다양한 주제들을 칼빈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 관점으로 분석과 해석을 시도할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칼빈의 그 “연합” 사상을 교회론과 그 안에서 다루어지는 여러 주제들 이해를 위한 하나의 연구 방법, 또는 하나의 신학적 해석 원리처럼 다룰 것이다. 한편, 지면 관계상 더 체계적인 분석과 해석을 위해 칼빈 신학의 요약본이라 할 수 있는 『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그 연구의 범위를 제한할 것이다.¹⁴⁾

그 연구 방법과 연구 범위를 가지고 제2장에서는 선행 연구 격으로 교회론과 칼빈의 그 “연합” 사상 간의 신학적 연관성을 다룰 것이다. 제3장은 칼빈의 그 “연합” 사상으로 교회론 다시 읽기를 시도하여, 교회의 본질이 ‘우리 신자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 이해까지를 내포함을 분석할 것이다. 제4장은 교회론 안의 다양한 주제들의 신학적 특징을 칼빈의 “연합” 사상 관점으로 해석할 것이다. 한편, 그것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간략하게나마 실천론적 적용을 다룰 것이다. 마지막 결론 안에서는 본 논고에 대한 종합적인 요약, 연구의 한계점, 그리고 추후 연구 제안 등을 간략하게나마 다룰 것이다.

그 결과 칼빈의 “연합” 사상 중심의 본 연구는 교회의 본질과 그 속에 있는 다양한 주제들의 이해와 해석에 대하여 하나의 새로운 연구 접근 방법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본 연구는 한국 교회의 개혁과 대사회적 신뢰 회복의 실천론적인 연구를 위한 교회의 본질, 기능, 그

14) 그럼에도 필요할 경우 부분적으로나마 칼빈의 성서 주석과 설교집도 인용할 것이다.

리고 역할을 다루는 연구 방법에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신학적 원리를 제시할 것으로 희망한다. 왜냐하면 칼빈의 “연합” 사상을 응용하여 교회의 본질 이해와 교회 개혁을 위한 실천론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후속 연구가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II. 선행 연구: 칼빈의 교회론의 중심 속에 있는 “그리스도와 의 연합” 사상

칼빈은 ‘우리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최고로 중요한 것”으로 여길 만큼 그 중요성에 대하여 여러 차례 강조했다. 다음은 그 강조의 대표적인 한 예이다:

그러므로 머리와 지체들의 연합, 즉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심은 간단히 말해서, 신비로운 연합이며 우리는 그것을 최고로 중요한 것으로 여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써 그가 받은 은사를 우리도 공유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밖에 계신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덧입고 그의 몸에 접붙여져야 하기 때문에, 즉 그가 우리를 당신과 하나로 만드시기 때문에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¹⁵⁾ (굵은 글씨체는 본 필자의 강조임.)

한편,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이 칼빈 신학 안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거나, 아니면 하나의 ‘중심 교리’ 같은 신학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15) *Institutes*, 3.11.10.

그것의 중요성에 관한 신학적 진술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¹⁶⁾ 물론 칼빈 신학 안의 중심 교리, 또는 그의 핵심 사상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¹⁷⁾ 그 논쟁과 맞물려 칼빈 신학 안의 그런 한 핵심

16) Charles Partee, *The Theology of John Calvi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8), 168–177; William B. Evans, *Imputation and Impartation: Union with Christ in American Reformed Theology* (Eugene: Wipf and Stock Publishers, 2008), 1–8; Kevin Dixon Kennedy, *Union with Christ and the Extent of the Atonement in Calvin* (New York: Peter Lang, 2002), 14, 152; Sung Rual Choi, *Union With Christ: Re-reading Calvin in Korean-American Reformed Theology* (Eugene, OR: Wipf and Stock Publishers, 2023), 3.

17) 칼빈 신학 안에 하나의 '중심 교리'가 존재한다는 다양한 진술들을 다루고 있는 참고 자료에 관해서는 다음의 책들과 논문들을 참고하라: J. Todd Billings, *Calvin, Participation, and the Gift: The Activity of Believers in Union with Chris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19; Wilhelm Niesel, *The Theology of Calvin*, trans. Harold Knight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 House, 1980), 9–21; Richard C. Gamble, "Calvinas Theologian and Exegete: Is There Anything New?" in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Calvin's Theology: Volume 7*, ed. Richard C. Gamble (New York: Garland Publishing, Inc, 1992), 44–60; I. John Hesselink, "Calvin's Theology," in *John Calvin*, ed. Donald K. Mcki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78–81; Charles Partee, "Calvin's Central Dogma Again," in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Calvin's Theology: Volume 7*, ed. Richard C. Gamble (New York: Garland Publishing, Inc, 1992), 75–78; Herman J. Selderhuis, *Calvin's Theology of the Psalms* (Grand Rapids, Michigan: Baker Academic, 2007), 14–38; Cornelis P. Venema, *Accepted and Renewed in Christ: The Twofold Grace of God and the Interpretation of Calvin's Theology*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7), 7.

한편, 칼빈 신학 내의 '중심 교리'를 거부하는 진술들을 다루고 있는 참고 자료에 관해서는 다음의 책들과 논문들을 참고하라: Michael S. Horton, "Calvin's Theology of Union with Christ and the Double Grace: Modern Reception and Contemporary Possibilities," in *Calvin's Theology and Its Reception: Disputes, Developments, and New Possibilities*, ed. J. Todd Billings and I. John Hesselink (Louisville, Kentucky: John Knox Press, 2012), 80; John H. Leith, "Calvin's Theological Method and the Ambiguity in His Theology," in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Calvin's Theology: Volume 7*, ed. Richard C. Gamble (New York: Garland Publishing, Inc, 1992), 265; Alfred Göhler, *Calvins Lehre von der Heiligung* (München: Kaiser, 1934), 81; Brian G. Armstrong, "The Nature and Structure of Calvin's Thought According to the Institutes: Another Look," in *John Calvin's Institutes His Opus Magnum* (Potchefstroom Univeisity, 1986), 55–61.

사상과 연관하여 교회론의 중요성을 강조한 최초의 신학자 중 한 사람이 베버(Otto Weber)이다. 그에 따르면 칼빈 신학 사상의 중심에 다른 아닌 교회가 자리 잡고 있다.¹⁸⁾ 밀너(Benjamin Charles Milner)도 상대적으로 비교적 이른 시기에 칼빈 신학의 한 중심 주제로서 교회론의 중요성을 강조한 신학자 중 한 사람이다.¹⁹⁾

한편 다손빌(Victor E. D'Assonville)은 칼빈이 그의 신학 안에서 교리들의 필수 조건을 강조할 때, 반복적으로 다른 아닌 “교회”와의 연관성을 가지고 강조했다고 진술한다.²⁰⁾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칼빈의 교회론은 총 4권으로 구성된 그의 『기독교 강요』 중에서 주로 제4권 안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 근거는 칼빈 자신이 최종적으로 그 제4권의 제목을 “하나님에 의해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인도되며 또한 그 안에 있게 되는 외적 수단 혹은 장치”라고 교회론적으로 정했기 때문이다.²¹⁾ 그런 관점에서 교회론은 셀더하위스(Herman J. Selderhuis)의 분석처럼 『기독교 강요』 제4권의 “핵심 주제”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²²⁾ 그럼에도 우리는 다손빌의 칼빈 신학 내 교회론의 중요성과 광범위성에 대한 평가를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신학적 주제는 그의 평가대로 칼빈 신학 전체 안에서 광범위성과 반복성을 가

18) Otto Weber, *Die Treue Gottes in der Geschichte der Kirche*, Gesammelte Aufsätze II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des Erziehungsverein, 1968), 19.

19) Benjamin Charles Milner Jr., *Calvin's Doctrine of the Church* (Leiden: E. J. Brill, 1970).

20) Victor E. D'Assonville, “Exegesis and *Doctrina*,” in *The Calvin Handbook*, ed. Herman J. Selderhuis, trans. Henry J. Baron, Judith J. Guder, and Randi H. Lundell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2009), 382–383.

21)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ohn T. McNeill, trans. Ford Lewis Battles, 2 vols.,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Series nos. 20–1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22) Herman J. Selderhuis, “The *Institutes*,” in *The Calvin Handbook*, ed. Herman J. Selderhuis, trans. Henry J. Baron, Judith J. Guder, and Randi H. Lundell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2009), 204.

지고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칼빈의 교회론을 '우리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으로 분석하는 시도가 왜 필요하며,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신학적 의미를 제공하는가? 칼빈의 교회론 '다시 읽기' 라는 시도를 그 "연합" 사상으로 다루려는 연구 목적은 비교적 간단하다. 왜냐하면 그 연합 사상이 칼빈의 전체 신학 안에서 광범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교회론과는 더욱 긴밀한 신학적 연관성을 보이기 때문이다.²³⁾ 그 "연합" 교리가 칼빈의 신학 안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주장은 콜프하우스(Wilhelm Kolffhaus) 등에 의해 1930년대 후반부터 제기되었다.²⁴⁾ 그런 주장은 최근에 에반스(William B. Evans), 파르티(Charles Partee), 칸리스(Julie Canlis) 등에 의해 반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것의 검증 연구 결과물들을 쏟아내고 있다.²⁵⁾

칼빈은 그의 교회론 안에서 마치 부속 교리처럼 교회의 본질론, 직분론, 교회정치론, 제도와 조직론, 징계와 치리론, 세례론, 성만찬론, 그리고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론 등 다양한 신학적 주제들을 다루었다.²⁶⁾

23) Kennedy, *Union with Christ*, 153; Stephen N. Williams, "Living in Union with Christ according to John Calvin (1509–1564)," in *Living in Union with Christ in Today's World: The Witness of John Calvin and Ignatius Loyola*, ed. Brendan McConvery (Dublin, Ireland: Veritas Publications, 2011), 26.

24) Wilhelm Kolffhaus, *Christusgemeinschaft bei Johannes Calvin* (Neukirchen: Kr. Moers; Buchlandlungen des Frziehungvereins, 1939).

25) William B. Evans, *Imputation and Impartation : Union with Christ in American Reformed Theology* (Eugene, Oregon: Wipf & Stock, 2008), 8; Charles Partee, *The Theology of John Calvi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8), xv; Julie Canlis, *Calvin's Ladder: A Spiritual Theology of Ascent and Ascension*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10), 5–6; Sherif A. Fahim,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and Union with Christ: Fresh Insights from Calvin, Westminster, and Walter Marshall* (Eugene, OR: Wipf and Stock Publishers, 2022).

26) *Institutes*, 제4권.

그 다양한 신학적 주제들을 칼빈이 “최고로 중요한 것”으로 여긴 그 연합 사상 중심으로 분석하는 시도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제공할 것이다. 한편, 플라스거(Georg Plasger)처럼 칼빈의 교회론 안의 다양한 신학적 주제 중에서, 마치 하나의 부속 교리 같이 교회의 본질로서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다룬 연구는 많다.²⁷⁾ 한국 내에서도 칼빈의 “그리스도와의 연합론”에 관한 연구와 교회론에 관한 연구들이 다양한 신학적 관점과 접근 방식들로 발표됐다. 그러나 그 연구의 대부분은 그 두 교리를 각각 따로 다루었거나, 아니면 그 두 교리의 상관성을 제한적이거나 부분적으로 다룬 것들이었다.²⁸⁾ 그러나 본 논문은 기존 연구와의 차별화를 위해, 역으로 그 ‘우리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을 중심으로, 심지어 칼빈이 다룬 ‘우리 신자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 사상으로도 그 ‘교회의 본질론’과 ‘교회론 안의 다양한 신학적 주제들’을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적 접근은 다른 논문들과 차별화된 본 논고의 독특한 연구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이런 차

27) Georg Plasger, “Ecclesiology,” in *The Calvin Handbook*, ed. Herman J. Selderhuis, trans. Henry J. Baron, Judith J. Guder, and Randi H. Lundell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2009), 326–327.

28) 양진영,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논의: 구원론과 교회론의 연속성의 관점에서,” 『한국개혁신학』 제79집 (2023년 8월): 276–306; 김요섭,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칼빈의 교회 제도 제안의 신학적 기초,” 『개혁논총』 제15권 (2010년 9월): 193–225. 안인섭, “칼빈의 목회관과 한국 교회의 과제: 사회복지의 목회적 의미를 중심으로,” 『개혁논총』 제11권 (2009년 9월): 345–370. 김요섭, “‘철저함과 온건함’(Severitas et Clementia): 칼빈의 교회 권징(Church Discipline)의 두 원리와 교회론적 배경 연구,” 『개혁논총』 제12권 (2009년 12월): 37–72. 이은선, “칼빈의 제네바 개혁활동에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 국가로부터 독립된 교회 치리권 확보를 중심으로,” 『개혁논총』 제13권 (20010년 3월): 229–257. 장경근, “교회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집사직에 대한 연구: 집사직에 대한 칼빈의 이해를 중심으로,” 『교회교육·복지실천 연구』 제1권, 제1호 (2018년 6월): 29–45; 고신대학교 개혁주의학술원 편, 『개혁주의신학과 신앙총서 1: 칼빈과 교회』 (부산: 고신대학교출판부, 2007).

별화는 칼빈의 독특한 교회론의 특징 중 하나이며, 종교개혁 시대의 신학자들인 루터(Martin Luther), 부셔(Martin Bucer), 츠빙글리(Huldrych Zwingli), 멜란히톤(Philipp Melanchthon) 등의 교회론과도 차별성을 가진다고도 볼 수 있다.

실제로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전권 중에서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제4권을 시작하면서 그 서론 격인 제1장의 제목을 다름 아닌 “참된 교회: 모든 경건한 자의 어머니인 이 교회와 우리는 연합해 있어야 한다”라고 붙였다. 그와 같은 사실은 칼빈이 ‘교회의 본질’과 ‘교회론에 속한 다양한 주제들’, 그리고 그 “연합” 사상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다루었음을 의미한다. 다음의 『기독교 강요』 제4권의 제1장과 2장 안의 칼빈 자신의 진술이 그러한 사실들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전편(제3권)에 설명된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유가 되시고, 우리가 그가 가져 오신 구원 및 영원한 축복의 참여자가 되는 것은 복음을 믿음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생기게 하고 증대시키며 그 목표에 이르게 하려면 무지하고 게으른 우리들에게는 외적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약점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러한 장치(교회)를 첨가하셨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에서 모든 다른 지체들과 연합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장래의 기업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리스도가 나누어지지 않는 한(참조, 고전 1:13) 교회도 둘이나 셋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공회”(Catholic), 혹은 “보편적 교회”(Universal)라고 부른다. 모든 선택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었으므로 (참조, 엡 1:22-23), 한 머리를 의존하며 서로가 한 몸이 되고 한 몸에 달린 지체들같이(롬 12:5; 고전 10:17; 12:12, 27) 서로 단단히 결합된다(엡 4:16, 참조). 그들은 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또 같은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함께 살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들을 부르심은 영생을 다같이 유업으로 받게 하실 뿐 아니라, 한 하나님과 한 그리스도께 참여시키기 위함이다(엡 5:30).²⁹⁾ (이탈릭체는 필자의 강조임)

이와 같이 칼빈은 “연합,” “결합,” “한 몸 됨,” “하나 됨,” “참여” 등의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우리 교회의 본질 중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 또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연합된 “하나의 지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런 연합된 “한 몸”이라는 이유로 칼빈은 교회를 단수형으로 표현하였다. 다시 말해 흩어져 있는 각 개별적 교회는 그리스도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한 몸”이라는 본질적 속성을 가진다. 이와 같이 칼빈 신학 안에서 교회의 본질론과 그 연합 사상 간에는 매우 긴밀한 신학적 상관성을 가지고 다루어지고 있다.

다음 이어지는 항목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칼빈의 그 연합 사상 중심으로 보면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을 한 교회, “실재적 연합”을 한 교회,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을 한 교회이다. 중요한 사실은 그 “연합” 사상 중심으로 보는 교회의 본질적 속성들은 각각 그 개별적인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도 있지만, 동시에 그것들 상호 간에 긴밀한 관계성(inter-close connection), 상호 불가분성(inter-indivisibility), 또는 상호 교환적인(inter-changeable) 특징을 가지고 있다. 칼빈의 그 연합 사상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진 가장 대표적인 교회의 본질적 속성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9) *Institutes*, 4.1.1; 4.1.2.

III. 칼빈의 “연합”(Unio) 사상 관점으로 교회의 본질론 다시 읽기

1.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Mystical Union)을 한 교회

첫 번째로, 칼빈이 강조한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unio mystica)을 한 공동체라는 신학적 의미가 있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그 신비적 연합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전혀 설명할 수 없는 마치 불가지론(agnosticism)³⁰⁾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부활 승천하신 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공간적 한계를 초월하여, 신자 각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와의 실제적이며, 동시에 영적으로 연합해 계신다는 의미에서 그것을 신비적 연합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분명하게 “신비”(μυστήριον)이며, “비밀”(mystery)이라고 선포한다(엡 5:23, 30-32). 칼빈 역시도 그리스도의 실체와 우리 신자와의 연합이 성령의 은밀한 능력(the secret power of the Holy Spirit)으로 이루어지며, 우리의 이성과 그리고 공간적 한계를 초월하여 신비적으로 이루어짐을 강조한다. 칼빈은 교회 또는 신자 개인과 그리스도와의 그러한 신비적 연합이라는 신학적 의미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의 전체 신학 안에서 그 신비적 연합을 광범위하면서도 반복적으로 다루고 있

30) Alan Richardson and John Bowden, *A New Dictionary of Christian Theology* (London: SCM Press, 1983), 9-10; Sinclair B. Ferguson, David F. Wright, and J. I. Packer, *New Dictionary of Theology*, 12. 불가지론(不可知論)이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헉슬리(T. H. Huxley, 1825-95)가 주장한 이론이다.

다.³¹⁾ 다음의 반복적인 칼빈의 진술들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그 신비적 연합의 의미와 중요성을 명확하게 잘 보여 주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접붙임이란,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성장하는 신비한 연합(*arcanam coniunctionem*)을 의미한다. 이 신비한 연합에 의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소생시키며, 그의 능력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이다...³²⁾ 그러므로 머리와 지체들의 연합, 즉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심은 간단히 말해서, 신비로운 연합이며 우리는 그것을 최고로 중요한 것으로 여긴다... 그러므로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밖에 계신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덧입고 그의 몸에 접붙여져야 하기 때문에, 즉 그가 우리를 당신과 하나로 만드시기 때문에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³³⁾ “이 비밀이 크도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영적 연합에 대한 놀람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 바울은 이것이 큰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신비한 방법을 정의하라면 우리는 확신 있는 대답을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깊은 비밀로 말미암아 압도를 당하여 바울처럼 나의 무식함을 깨닫게 된 데 대해 조금도 부끄러움을 갖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결합(연합)의 본질을 알아내려 하지 말고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자.³⁴⁾ (이탤릭체는 필자의 강조임)

31) *Comm. on Ro. 6:5; Comm. on 1 Co. 11:24; Comm. on Eph. 5:29, 30, 31, 32; Serm. on Acts. 2:1-4; Serm. on Eph. 5:32; Institutes, 2.2.16; 2.3.1; 2.3.6; 2.12.7; 3.1.1; 3.1.3; 3.11.5; 3.11.9; 3.11.10; 4.17.1; 4.17.3; 4.17.5; 4.17.7; 4.17.8; 4.17.9; 4.17.10; 4.17.11.*

32) *Comm. on Ro. 6:5.*

33) *Institutes, 3.11.10.*

34) *Comm. on Eph. 5:32. Institutes, 2.9.3; 2.16.14; 3.1.4; 3.2.1; 3.2.8; 3.2.24; 3.2.30; 3.2.35; 3.15.6.*

이와 같이 칼빈은 “신비한 연합,” “신비로운 연합,” 그리고 “신비한 방법”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우리 신자와 교회가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룬 존재와 본질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 신비적 연합을 이룬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와 “몸”이며,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것이 칼빈이 반복적으로 강조한 교회의 본질이며, 정체성이다. 우리의 이성과 자연 세계를 초월한 그 신비적 연합의 결과 때문에, 칼빈의 강조처럼 신자와 교회는 그 안에서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교회의 우선적 회복의 원리가 칼빈의 그 “연합” 사상 중심으로 접근하는 교회의 본질론 이해와도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

2. 그리스도와의 ‘실재적 연합’(Real Union)을 한 교회

두 번째로, 그 연합 사상 관점으로 보면 칼빈이 강조한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와의 “실재적 연합”을 한 공동체라는 신학적 의미도 있다. 성경과 칼빈의 신학 안에서는 신자 또는 교회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는 방식에 대하여 상당히 다양한 이미지와 표현을 사용하여 다룬다. 그러나 그 연합 방식은 크게 ‘영적인 연합’(spiritual union)과 ‘실재적 연합’(real union)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스도와 우리 신자 또는 교회와의 연합은 성령과 믿음을 통한 ‘영적인 연합’이다. 앞서 신비적 연합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것은 인간의 이성과 공간을 초월한다. 동시에 그 연합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실체를 교회에게 실질적으로 내어 주심으로 이루어지는 ‘실재적인 연합’이기도 하다. 실제로 칼빈은 그의 신학 안에서 “실재”(real), “실체”(substance), 그리고 “본질”(essence)이라는 단어와 함께 다양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우리와 그리스도*

와의 연합의 실재성을 강조하였다.³⁵⁾ 그런 관점에서 진정으로 교회의 본질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과 실재적 연합이라는 그 두 신학적 의미는 상호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의 ‘실재적 연합’을 제외한 ‘영적인 연합’이란 결국 사변적 사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영적인 연합’을 제외한 ‘실재적 연합’은 범신론(pantheism)이 된다.³⁶⁾ 칼빈의 그러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과 “실재적 연합”과의 상호 불가분의 관계성은 월레스(Ronald S. Wallace)의 다음의 진술 속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인간적 본성 또는 육체를 입으신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이 ‘신비한 연합’(mystical union)의 본질과 실재를, 칼빈은 복음의 큰 신비들 중의 하나로 간주한다. 그것은 ‘자신들에게서 벗어나’ 사는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는 참되고 실질적인 연합(a real and substantial union)이다. 그 연합을 방편으로 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한 본체’가 되며, 우리는 “그의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 된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신

35) *Institutes*, 2.12.7; 2.13.2; 2.16.16; 2.17.1; 3.1.1; 3.1.2; 3.1.3; 3.2.24; 3.8.1; 3.9.5; 3.9.6; 3.11.5; 3.11.10; 3.11.21; 3.16.2; 3.17.11; 3.18.3; 3.20.19 3.21.7; 3.25.10; 4.1.2; 4.1.3; 4.2.6; 4.3.2; 4.6.10; 4.6.17; 4.7.21; 4.14.7; 4.14.15; 4.15.16; 4.15.22; 4.16.22; 4.17.2; 4.17.4; 4.17.5; 4.17.6; 4.17.9; 4.17.10; 4.17.11; 4.17.12; 4.17.14; 4.17.15; 4.17.16; 4.17.19; 4.17.20; 4.17.21; 4.17.24; 4.17.33; 4.17.34; 4.17.38; 4.18.10; 4.19.25; 4.19.36; Jean Calvin, Calvin: *Commentaries*, trans. and ed. Joseph Haroutunian, Louise Pettibone Smith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8), 208; *Comm.* on 1 Co. 11:24; *Comm.* on Eph. 5:30; *Comm.* on Jas. 2:14.

36) 범신론(pantheism)이란, 모든 만물의 존재 속에 신의 실재가 혼합되어 하나의 신적 존재가 된다는 사상이다.

령한 연합' (spiritual union)으로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총체적으로 혼합되는' (gross mixture)일은 결코 있지 않다. 더욱이 이 연합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케 되고, 믿음을 떠나서는 체험될 수가 없다.³⁷⁾ (이탤릭체는 필자의 강조임)

이와 같이 신자 또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실재적 연합'이라는 신학적 의미는 '영적인 연합'의 의미들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로 설명될 수 없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만약 그 영적인 연합을 간과하고 반면에 실재적 연합에만 집중할 때, 윌레스가 주장한 것처럼 그것의 신학적 의미를 완전히 왜곡되게 이해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적으로 칼빈의 오시안더(Osiander)와의 논쟁적인 다음의 진술 속에서도 그러한 우려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그리고 그(오시안더)는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이 우리 안에 주입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실제적으로 의롭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나서 그는 여러 가지 본질을 혼합하여,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우리 속에 주입하심으로 우리를 그의 일부로 만드신다고 한다... 오시안더는 그리스도의 본질이 우리의 본질과 혼합되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 중요성도 없다고 본다.³⁸⁾ (괄호와 이탤릭체는 필자의 강조임)

이와 같이 칼빈의 비판처럼 오시안더는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다름 아닌 '존재론적 혼합' (ontological mixture)으로 이해하였다.

37) Ronald S. Wallace, *Calvin's Doctrine of the Christian Life* (Tyler, TX: Geneva Divinity School Press, 1982), 18. 이 진술 안에서 윌레스가 인용한 칼빈의 신학 작품들은 다음과 같다. *Institutes*, 3.1.3; 3.11.10; 4.17.3; *Comm. on 1 Co.* 11:24; *Comm. on Gal.* 2:20; *Comm. on Heb.* 5:9.

38) *Institutes*, 3.11.5.

따라서 그리스도의 본질과 우리의 본질이 마치 밀가루 반죽처럼 뒤섞인 “본질적 혼합”으로 이해했다고 칼빈이 비판한 것이다. 칼빈이 이해한 것은 우리 신자 또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그 ‘본질적 혼합’이 아닌, 반면에 ‘실재적 연합’이다. 칼빈의 이해 속에는 그 실재적 연합 안에 그리스도의 본질과 우리의 본질이 범신론적으로 혼합되지 않는다. 그것의 신학적 의미는 그리스도와 우리 신자 또는 교회와의 연합이 결코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사상이 아닌, 실재적 사건이라는 것을 뜻한다. 동시에 그것은 영적인 연합을 배제하지도 않는다. 종합하면 그것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we in Christ), 또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Christ in us) 실재적, 실체적, 그리고 동시에 영적으로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요 15:5; 고전 6:15-19; 엡 1:22-23; 4:15-16; 5:29-30; 요일 3:24; 4:13).

칼빈의 그 우리 신자 또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실재적 연합’이라는 신학적 의미는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에 관한 아홉 번째 설교와 에베소서 주석 속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통일성을 이해 하자. 그분께서 우리와 공통되는 삶을 살고자 하신 사실과,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어야만 했다는 사실을 이해하도록 하자. 더 나아가서 그분께서는 상상 속에서가 아니라 실제로, 세속적인 형태를 따라서가 아니라 신령하게 *우리 안에 거하고자 하신다는 사실과*, 어떠한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분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써 *마치 수족들과 몸의 관계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그분과 가깝게 연합된다...*³⁹⁾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었다면, 우리는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의 실체와 교통함에 이르

39) OS. 46: 953. François Wendel, *Calvin: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His Religious Thought*, trans. Philip Mairet (London: Collins, 1963), 235도 참고하라.

려야 한다.⁴⁰⁾ (*이탈릭체*는 필자의 강조임)

이와 같이 그리스도 자신의 실체와 우리 신자 또는 교회와의 실재적 연합은 그것이 하나의 상상이나 상징이 아니라, 성령과 믿음에 의해 이루어지는 하나의 실질적인 생생한 사건임을 깨닫게 해준다. 그런 관점에서 실재적 연합은 칼빈의 강조처럼 우리 신자와 교회의 본질이 “그리스도의 지체들”로서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의 실체와 교통”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준다. 그 실재적 연합의 결과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한 수많은 혜택이 우리 신자와 교회에게 실재적(*practically*)이며 동시에 영적(*spiritually*)으로 주어진다는 것이며, 그런 논증과 설명도 가능하다는 사실이다.⁴¹⁾ 칼빈이 강조한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와 실재적으로 연합한 지체들이 모인 공동체이다. 그 실재적 연합에 의해 그리스도께서는 멀리 우리 밖에서가 아닌 반대로 우리 신자와 교회 안에서 현재적으로 내주하시고, 실재적으로 통치하시며, 그의 생명을 계속해서 불어 넣으시는 것이다. 교회가 교회답게 하기 위한 그 본질적인 회복의 신학적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3.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Union with the Triune God)을 한 교회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연합 사상 관점으로 보면 칼빈이 강조한 교회의 본질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을 한 공동체라 신학적 의미도 있

40) *Comm.* on Eph. 5:31.

41) Henry W. Holloman, “Sanctification,” in *Understanding Christian Theology*, ed. Charles R. Swindoll, Roy B. Zuck (Nashville, Tennessee: Thomas Nelson Publishers, 2003), 964–9.

다. 칼빈은 그의 신학 안에서 ‘우리 신자 또는 교회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연합되었다’라는 삼위일체론적 표현을 매우 반복적으로 사용했다.⁴²⁾ 그것은 칼빈이 우리 신자 또는 교회와 그리스도라는 삼위일체 하나님 한 위격과의 연합(union with the one person of the Triune God and us)을, 다른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 세 위격 모두와의 연합과 혼용하여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때로는 그 신학적 주제들에 따라 ‘하나님과의 연합’과 그리고 ‘성령과의 연합’이라는 비슷한 방식으로도 다룬다. 왜냐하면 칼빈에 따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별되시나 절대로 분리되지 않으시기”(distinctio non divisio) 때문이다.⁴³⁾

구체적으로 칼빈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심(the Holy Spirit dwells in us),”⁴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심(through his Holy Spirit he(God) dwells in us),”⁴⁵⁾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심(Christ dwells in us only through his Spirit)”⁴⁶⁾(롬 8:9)이라는 삼위일체적 표현을 그의 신학 안에서 혼용하며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그것들은 교회의 본질이 그리스도뿐

42) *Institutes*, 1.13.16; 1.13.24; 1.15.5; 1.15.6; 2.2.1; 2.3.7; 2.3.8; 2.3.10; 2.8.34; 2.8.51; 2.10.2; 2.10.7; 2.10.7; 2.10.8; 2.10.15; 2.8.23; 2.11.10; 2.11.11; 2.12.1; 2.12.6; 2.14.3; 2.15.4; 2.15.5; 2.16.3; 2.16.14; 2.16.16; 3.1.1; 3.1.2; 3.1.3; 3.2.1; 3.2.12; 3.2.33; 3.2.35; 3.2.39; 3.3.14; 3.6.2; 3.11.5; 3.11.8; 3.11.9; 3.11.12; 3.14.6; 3.14.9; 3.14.18; 3.14.19; 3.17.5; 3.17.6; 3.18.3; 3.23.14; 3.24.1; 3.24.2; 3.25.2; 3.25.10; 4.1.2; 4.1.3; 4.1.20; 4.1.21; 4.6.5; 4.14.16; 4.15.6; 4.17.10; 4.17.12; 4.17.18; 4.17.28; 4.17.31; 4.17.33; 4.17.42; J. Todd Billings, *Union with Christ: Reframing Theology and Ministry for the Church* (Grand Rapids, Michigan: Baker Academic, 2011), 65도 참고하라.

43) *Institutes*, 1.13.6.

44) *Institutes*, 2.10.23.

45) *Institutes*, 3.14.9.

46) *Institutes*, 4.17.12.

만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된 공동체라는 칼빈의 강조를 드러낸다.

결국 그와 같은 연합 방식은 삼위일체 하나님 세 모두의 위격과 우리 신자 또는 교회가 실제적으로 하나로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할 수 있는 교회의 본질론에 관한 결정적 근거가 된다. 칼빈의 다음의 오시안더(Andreas Osiander)와의 논쟁적 진술은 그러한 사실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그리고 그(오시안더)는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이 우리 안에 주입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실제적으로 의롭다고 주장한다. 그리스도 뿐 아니라, 아버지와 성령도 우리 안에 계시다고 그가 맹렬히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나는 이것을 사실이라고 인정하지만 그는 이 생각을 사악하게 왜곡하였다. 그는 내주(內住)의 방식을 생각했어야만 했다. 즉 그는 아버지와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며, 나아가서 신성(神性)의 충만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골 2:9), 그의 안에서 우리도 신성 전체(성부, 성자, 성령)를 소유한다는 것을 그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가 아버지와 성령에 관해서 따로 주장하는 것은 단순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도록 유혹할 뿐이다.⁴⁷⁾ (이탈릭체는 필자의 강조임)

이와 같이 칼빈은 분명하게 오시안더의 하나님의 본질과 우리 신자 또는 교회와의 범신론적인 혼합 사상(*mixture with the essence of God and us*)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 사상(*union with the Triune God*)에 대해서는 확실히 인정하고 있다. 우리 신자와 교회는 성령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세 모두의 위격과 실제적으로 하나로 연합된 존재이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47) *Institutes*, 3.11.5. (참조, 고전 1:2)

은 더 이상 멀리 우리 신자와 교회 밖에서 초월적 방식(transcendental formula)만이 아닌, 우리 안에서 내재적 방식(immanent formula)으로도 우리를 통치(reign), 섭리(guide), 인도(lead), 관계(participate)하시는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다. 그런 이유에서 그 연합 사상 중심으로 보면 교회의 본질과 신자의 정체성은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의 위격과 연합된 존재인 것이다. 그런 삼위일체적 연합 관점에서 보면 결국 칼빈의 신학이 성령 중심적 신학(Pneumato-centric theology), 그리스도 중심적 신학(Christo-centric theology), 삼위일체 중심적 신학(Triune God-centric theology), 성령론적 삼위일체 중심적 신학(Pneumato-Triune God-centric theology), 또는 기독교론적인 삼위일체 중심적 신학(Christo-Triune God-centric theology)이라는 신학자들의 다양한 분석들도⁴⁸⁾ 다 틀린 주장이 아닌 것이다.

한편, 칼빈에 따르면 교회 또는 우리 신자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의 신학적 의미는 매우 역동적이며 실천론적이다. 왜냐하면 교회 또는 우리와 삼위일체 하나님 세 모두의 위격들과의 실제적인 연합(the

48) John Hesselink, *Calvin's First Catechism: A Commentary*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7), 216(n.1); A. Lillback, "Ethics: The Christian Life and Good Works according to Calvin (2.10-11)," in *A Theological Guide to Calvin's Institutes: Essays and Analysis*, ed. David W. Hall and Peter A. Lillback (Phillipsburg, New Jersey: P&R Publishing Company, 2008), 168-204; Burk Parsons, "The Humility of Calvin's Calvinism," in *John Calvin: A Heart for Devotion, Doctrine, and Doxology*, ed. Burk Parsons (Lake Mary, FL: Reformation Trust, 2008), 1-17; Eric J. Alexander, "The Supremacy of Jesus Christ," in *John Calvin: A Heart for Devotion, Doctrine, and Doxology*, ed. Burk Parsons (Lake Mary, FL: Reformation Trust, 2008), 109-118; Matthias Freudenberg, "Calvin's Reception in the Twentieth Century," in *The Calvin Handbook*, ed. Herman J. Selderhuis, trans. Judith J. Guder, Henry J. Baron, Randi H. Lundell, and Gerrit W. Sheeres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9), 500-502.

practical union with all three persons of the Triune God and us)에 의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요 6:51-58; 롬 6:4-5; 8:9-11; 요일 5:11-12)이 *우리 신자와 교회 안*으로 유입되기 때문이다.⁴⁹⁾ 그 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과 연합한 공동체,’ ‘그리스도와 연합한 공동체,’ 그리고 ‘성령과 연합한 공동체’가 된다. 그런 표현들은 구별되어 다루기도 하지만, 그러나 완전히 분리해서 다룰 수 없다.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된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본질론’으로 신학적 접근을 할 때, 교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적인 회복에 관한 하나의 신학적 원리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IV. 칼빈의 “연합”(Unio) 사상 중심으로 교회론의 다양한 신학적 주제들 다시 읽기, 그리고 실천론적 적용

1. 교회론의 다양한 신학적 주제들과 칼빈의 “연합” 사상

앞서 언급한 것처럼 칼빈의 교회론 안에는 다양한 신학적 주제들이 다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교회론 안의 신학적 주제들은 ‘우리 신자 또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 과도 긴밀한 상관성을 가지고 다루어지고 있다.⁵⁰⁾ 칼빈은 교회론 안의 세례론, 성만찬론, 예배론, 교회

49) *Institutes*, 3.1.2; 3.8.7; 3.11.9; 3.11.12; 3.15.5; 3.22.6; 3.22.7; 4.15.15; 4.17.5; 4.17.10; 4.17.11; 4.17.18; 4.17.32; 4.17.33; 4.17.34.

50) *Institutes*, 2.8.18; 2.12.7; 2.15.3; 2.15.5; 2.16.15; 3.1.4; 3.25.3; 4.1.2; 4.3.1; 4.3.2; 4.7.21; 4.7.24; 4.8.11; 4.11.2; 4.12.5; 4.12.24; 4.15.1; 4.15.15; 4.15.22; 4.17.9; 4.17.28; 4.19.35.

의 일치론, 성도의 교제론, 직분자론, 교회의 정체성, 하나님과의 친교 등의 다양한 신학적 주제들을 다룬 아닌 그리스도 또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 사상과도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이해하여 다루었다. 구체적으로 그것들을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세례론(the doctrine of baptism)⁵¹⁾ 역시도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다루고 있다: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에 대한 증표이다… 그 (그리스도)는 세례를 자비로우시게도 우리와 맺으신 연합과 친교의 가장 견고한 유대로 여기시고, 우리와 공통점을 가지시기 위하여 자기의 몸으로 세례를 성별하시고 거룩케 하셨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로 옷입게 된다는 사실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한다(갈 3:26-27). 이와 같이 우리는 세례의 완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⁵²⁾ (이탈릭체는 필자의 강조임)

칼빈은 교회의 세례를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표지라고 강조하였다. 교회는 세례를 행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다.

한편, 칼빈은 교회론의 한 신학적 주제 중 하나인 성만찬론(the doctrine the Eucharist)⁵³⁾ 역시도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과의 연관성

51) *Institutes*, 3.1.4; 4.14.7; 4.15.1; 4.15.5; 4.15.14; 4.15.15; 4.15.16; 4.15.22; 4.16.2; 4.16.7; 4.16.21; 4.16.22; 4.16.31; 4.17.28; 4.17.34; 4.19.8.

52) *Institutes*, 4.15.6.

53) *Institutes*, 4.14.15; 4.17.1; 4.17.4; 4.17.5; 4.17.7; 4.17.8; 4.17.10; 4.17.11; 4.17.12; 4.17.13; 4.17.14; 4.17.15; 4.17.16; 4.17.18; 4.17.19; 4.17.20; 4.17.22; 4.17.24; 4.17.26; 4.17.28; 4.17.31; 4.17.33; 4.17.34; 4.17.38; 4.17.39; 4.17.40; 4.17.42; 4.17.44; 4.17.45; 4.18.7; 4.18.8; 4.18.10.

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다루고 있다:

주의 만찬의 특별한 열매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거기서 그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그의 것은 무엇이든지 그들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증거를 얻는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인애로 말미암아 우리와 행하신 놀라운 교환(*mirifica commutatio*)이다.⁵⁴⁾ (이탈릭체는 필자의 강조임)

칼빈에 따르면 성만찬 예식도 세례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교회의 표지라고 강조한다.⁵⁵⁾ 교회는 그 성만찬을 행함으로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에게 참여”하게 되는 신비한 연합을 경험한다. 그러므로 성만찬을 행함으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공동체이고, 그의 생명에 참여한 공동체이며, 그와 한 몸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동시에 실제적으로도 경험할 수 있다.

칼빈은 교회의 예배 (*worship*) 역시도 하나님과의 연합 사상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다루고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순종 가운데 두기 위하여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정의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율법 아래 묶으셨는데, 그 첫째는, 신앙하는 자들을 그에게 결합하여 그들의 유일한 입법자가 되시고, 둘째로, 그의 뜻을 따라 옳게 예배하는 규칙을 정해 주셨다.⁵⁶⁾ (이탈릭체는 필자의 강조임)

칼빈에 따르면 참 종교와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성도를 연결”해 준

54) *Institutes*, 4.17.2.

55) *Institutes*, 4.17.2.

56) *Institutes*, 1.12.1.

다.⁵⁷⁾ 그러므로 신앙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고 연합한 성도는 예배 중에 그분의 영광과 임재에 실제로 참여하는 기쁨을 경험한다. 교회의 예배는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 주어야만 칼빈이 말한 “참 종교”가 될 수 있다.

칼빈은 하나님과 연합⁵⁸⁾한 그 분의 전으로서의 교회의 정체성 역시도 성령과의 연합 사상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다루고 있다:

또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요일 4:13)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성별하셔서 우리에게서 세속적인 더러움을 제하시고 하나님께 거룩한 성전들이 되게 하신다 (참조, 고전 3:16-17; 6:19; 고후 6:16; 엡 2:21).⁵⁹⁾ (이탈릭체는 필자의 강조임)

이와 같이 칼빈은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이 하나님과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과 “성령의 전”이라고 강조한다.⁶⁰⁾ 교회의 정체성이 다름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이므로, 교회는 세속적이고 더러움으로부터의 “성별”과 “거룩”을 추구해야 한다. 교회의 정체성 회복의 한 원리가 이 교리 안에 있다.

또한 교회론의 한 신학적 주제 중 하나인 교회 연합 (the union of the Church) 또는 교회 일치 (the unity of the Church)⁶¹⁾ 역시도 칼빈은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과의 연합 사상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다루고 있다:

57) Ibid.

58) *Institutes*, 2.8.29; 2.8.51; 3.6.2; 3.7.3; 3.11.12; 3.14.9; 3.15.5; 3.16.1; 3.16.2.

59) *Institutes*, 3.1.4.

60) *Institutes*, 3.16.2.

61) *Institutes*, 4.2.5; 4.2.6; 4.3.1; 4.3.2; 4.6.9; 4.6.17; 4.7.21; 4.11.2.

우리가 교회의 연합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연합된 교회에 진정으로 접붙임 받은 자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선택 받은 무리를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에서 모든 다른 지체들과 연합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장래의 기업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이다...⁶²⁾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한다(엡 2:20-21). 베드로는 우리에게 산 돌이 되라고 명하며, 저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돌 위에 놓여(벧전 2:5-6), 각각 우리의 하나됨과 연결됨으로써 서로 연합하라고 한다(참조, 엡 4:16; 골 2:19)...⁶³⁾ 양도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머리되심...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머리이시며, 우리는 모두 그의 지배 하에서 그가 제정하신 질서와 정치 형태에 따라 서로 연합된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엡 4:15-16). 당신은 바울이 어떻게 모든 사람을 예외 없이 한 몸에 포함시키면서도 머리라는 영예와 이름은 그리스도에게만 남겨 두는가를 아는가?... 바울은 모든 것이 각 지체를 통하여 공급되며, 힘은 하늘에 계시는 유일한 머리에서부터 흘러온다고 가르치고 있다(엡 4:10).⁶⁴⁾ (이탈릭체는 필자의 강조임)

이와 같이 칼빈은 교회론과 연관된 교회 연합 또는 교회의 일치를 그 연합 사상 안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부여한다. 삼위일체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공동체로서의 교회 안에는 성령의 은사에 따라 섬기는 직분들이 구별될 수는 있으나, 성직자 계급

62) *Institutes*, 4.1.2.

63) *Institutes*, 4.6.5.

64) *Institutes*, 4.6.9.

제도는 존재할 수 없다.⁶⁵⁾ 신분상으로 교회의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과 “한 지체”만이 될 뿐이다. 그런 관점에서 그 어떤 차별, 즉 인종 차별, 남녀 차별, 그리고 신분 차별 등이 우리의 교회 안에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 한편, 보다 넓은 의미에서 “교회의 일치”가 무엇인가? 비록 한 지역에 여러 교회가 다양한 목적으로 존재하고 있을 지라도, 궁극적 의미에서는 오직 단 하나의 그리스도를 위한(*for Christ*), 그리스도에 의한(*by Christ*), 그리스도의(*of Christ*) 교회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야 한다. 칼빈의 강조를 보면 종교 개혁의 동력의 근원 중 하나도 바로 이 교리에 있었을 것이다.

칼빈은 그의 교회론을 다루면서 성도의 교제(*the koinonia of the saints*)와 사랑(*love*)⁶⁶⁾ 역시도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본을 몸소 보이심으로써, 우리 자신을 서로에게 줄 것을 약속하며 실행하라고 권고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우리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심으로써, 우리를 그의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보다 더 날카롭게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하는 자극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⁶⁷⁾ 요한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요일 4:11; 요 13:34, 참조)라고 말한다. 사랑을 계속 실천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이며, 따라서 마귀의 자녀인 암흑의 자녀들과 다르다(요일 3:10; 2:10-11). 다시 바울의 주장을 살펴보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몸의

65) *Institutes*, 4.6.10.

66) *Institutes*, 3.16.2; 3.20.20; 4.17.42; 4.17.44; 4.18.7.

67) *Institutes*, 4.17.38.

지체가 되면(고전 6:15, 17; 12:12), 서로 일을 도와야 한다(고전 12:25, 참조).⁶⁸⁾ (이탤릭체는 필자의 강조임)

이와 같이 칼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강조하며, 모든 “형제들은 한 지체이므로 자신의 몸처럼 그들의 몸을 돌보아야 하는”⁶⁹⁾ 성도의 교제와 사랑을 강조하였다. 결국 교회 본질의 회복에 관한 원리는 칼빈이 강조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본을 몸소 보이심으로써, 우리 자신을 서로에게 줄 것을 약속하며 실행하라”는 주님의 권고와 삶을 계승하는 것에 있다.

한편, 교회론의 한 신학적 주제 중 하나인 그리스도의 삼(三) 중직 위임(the commission of the threefold offices of Christ) 또는 직분자론(the doctrine of the office)⁷⁰⁾ 역시도 칼빈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다루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 역할을 행하시되 화목이라는 영원한 법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화해할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러한 큰 영예에 참여할 수 있는 동료로서 영접해 주신다(계 1:6). 왜냐하면, 죄는 우리 스스로가 지으며 더러워진 우리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제사장이 되어...⁷¹⁾ 그(바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한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도록 세우신 사람들의 사역에 의해서, 왜 그분의 직능을 위임하신 사역자의 머리에 의해서가 아닌가?⁷²⁾ (이탤릭체는 필자의 강조임)

68) *Institutes*, 3.16.2.

69) *Institutes*, 4.17.38.

70) *Institutes*, 2.15.2; 2.15.4; 4.6.10.

71) *Institutes*, 2.15.6.

72) *Institutes*, 4.6.10.

칼빈에 따르면 주께서는 교회의 지체들인 성도 안에 연합해 계시며, 그들을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는 “동료”로서 불러주신다(엡 4:7-11). 교회의 본질 중 하나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 기능과 역할 중 하나는 그분의 제사장직, 선지자직, 그리고 왕직을 감당하는 것이다. 특별히 교회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중보자 사역인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교회의 대사회적 신뢰 회복의 한 원리가 이 교리 안에 있다.

마지막으로 교회론 안의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와의 친교*(the communion with God or Christ)와 *교제* (*koinonia*)⁷³⁾ 역시도 칼빈은 하나님과의 연합 사상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다루고 있다:

옛 계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그와의 친교*를 허락하셨고 영생도 주셨다: ... 또 영혼은 의를 통하여 *하나님께 연합되어 있지 않는 한, 죽을 때에 그로부터 분리된 채 남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편, 현재 그러한 연합이 있으면 그것은 영원한 구원을 수반 할 것이다...⁷⁴⁾ 그리스도께서는 그들 모든 신자들의 머리시라는 것을 진정으로 확신한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원 불변하심에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자신의 소유가 되었으며...⁷⁵⁾ (*이탈릭체는 필자의 강조임*)

이와 같이 교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교” 또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 그분과 연합한 공동체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73) *Institutes*, 3.2.24; 3.3.23; 3.5.5; 3.6.2; 3.6.4; 3.8.1; 3.11.10; 3.17.6; 3.18.1; 3.18.3; 3.24.5; 4.14.7; 4.15.6; 4.16.7; 4.16.17; 4.17.7; 4.17.9; 4.17.13.

74) *Institutes*, 2.10.8.

75) *Institutes*, 4.1.3.

새기는 것”이다.⁷⁶⁾ 그런 관점에서 교회의 본질적 기능과 역할 중 하나는 기도, 예배, QT, 말씀을 다루는 소그룹 모임 등을 통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를 힘쓰는 것에 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그분 안에서의 신비한 연합 관계에서 그 영광스러운 교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때문이다. 교회의 본질적 회복의 중요한 한 원리가 이 교리 안에 내포되어 있다.

종합하면 칼빈은 교회론 안의 다양한 신학적 주제들을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 또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 사상과의 긴밀한 연관성 안에서 다루었다. 종교개혁 중심에 있었던 칼빈의 신학 안에서 교회론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그것의 실제적인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다. 그것이 그 연합 사상 중심으로 교회론의 다양한 주제들을 분석하는 주요 목적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접근이 교회의 본질적 회복에 하나의 중요한 신학적 원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2. 교회론 안의 그 “연합” 사상에 관한 다양한 비유적 표현들

그 연합 사상 관점으로 보면, 칼빈은 교회와 우리 신자 개인을 구별은 하지만 그러나 완전히 분리하여 다루지 않는다. 다시 말해 칼빈은 그리스도 또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신자 각 개인과의 ‘개별적 연합’을 다루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회와의 ‘공동체적 연합’을 다루기도 하였다. 그러나 엄밀한 관점에서 보면 칼빈은 그 연합 사상을 단수 형태보다는, 더 많은 경우 그리스도 또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합이라는 복수적인 형식을 더욱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런 맥락에서 칼빈의 그리스도 또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 사상은 공동체적

76) *Institutes*, 2.10.8.

(communality) 개념을 다분히 포함하고 있다.⁷⁷⁾ 그러한 공동체적 개념의 직접적인 비유적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 또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의 연합이다. 칼빈은 앞서 다른 교회론의 다양한 주제들을 그 연합 사상의 공동체적 개념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다양한 비유적 표현들로 다루었다.

구체적으로 칼빈은 그 연합 사상의 교회 공동체적 개념들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되심(Christ is the head of the church)” (엡 1:22),⁷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The church is the body of Christ)” (엡 1:23),⁷⁹⁾ “교회의 모든 지체는 한 머리 아래에 있음(all members of the church are under one Head),”⁸⁰⁾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성한 결합(Christ deems marriage worthy of such honor that he wills it to be an image of his sacred union with the church)” (엡 5:23–24, 32),⁸¹⁾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원불변하심에 연결됨(Church has in a way been joined to the steadfastness of Christ),”⁸²⁾ “교회와 그리스도 자신을 하나로 만드심(Christ made himself one with his bride the church),”⁸³⁾ “교회라는 그의 공동체에 접붙임(engrafted into the body of the church),”⁸⁴⁾ “교회에는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여 계시고 앞으로도 항상 임재하실 것임(the church still has, and always will have, Christ present),”⁸⁵⁾

77) *Institutes*, 3.25.3; 4.1.2; 4.1.3; 4.1.21; 4.2.5; 4.2.6; 4.3.1; 4.6.5; 4.6.9; 4.6.10; 4.6.17; 4.7.21; 4.7.24; 4.11.2; 4.15.15; 4.17.1; 4.17.9; 4.17.28; 4.17.38; *Comm.* on Eph. 5:32; *OS*. 1:466.

78) *Institutes*, 4.6.17; 4.6.9; 4.6.10; 4.7.21; 4.7.24; 4.17.9.

79) *Institutes*, 4.17.9; 4.3.1.

80) *Institutes*, 4.7.21.

81) *Institutes*, 4.12.24.

82) *Institutes*, 4.1.3.

83) *Institutes*, 4.19.35.

84) *Institutes*, 4.17.1; 4.1.21.

85) *Institutes*, 4.6.10.

“하나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모든 교회를 일치하는 끈(one head is, as it were, the bond that unites all churches together),”⁸⁶⁾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연합시키심(... unite Christ with the church),”⁸⁷⁾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심으로써 우리를 그의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심 (Christ makes himself common to all, also makes *all of us one* in himself)”⁸⁸⁾이라는 다양한 비유적 표현들로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그 연합 사상의 다양한 비유적 표현들은 직접적으로 교회 공동체적 개념들로 구성된 것으로, 그것들은 모두 다름 아닌 교회론의 다양한 주제들과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

그런 맥락에서 칼빈이 그 연합 사상의 공동체적 개념의 비유적 표현을 가지고 강조한 핵심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 또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적 관계에 있는 교회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일 것이다. 칼빈은 그리스도 또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해 있다는 교회 본질의 중요성을 그 다양한 비유적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교회론의 다양한 주제들 안에서도 이미지적으로 생생하게 보여 주며 그 의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 존재하는 모든 기능과 역할(예배, 교육, 친교, 사회 구제, 선교 등)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다름 아닌 살아계신 그리스도 또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실제로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하나의 생생한 증거의 실물들이며, 생명력 있는 유기체적인 활동들이어야 한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회복을 위한 여러 대안을 모색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할 하나의 신학적 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86) *Institutes*, 4.6.17.

87) *Institutes*, 4.17.28.

88) *Institutes*, 4.17.38.

3. 실천론적 적용: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위임’받은 교회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제2권 안에서 집중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목적을 다룬다. 한편, 칼빈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목적을 그분의 세 가지 직책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⁸⁹⁾ 즉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그분의 삼중직 사역으로 요약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그의 모든 가르침과 선포 사역, 그의 십자가에서의 희생적 죽음과 모든 중보 사역, 그리고 그의 죄와 사망의 세력을 멸하시는 왕적 사역 모두를 포함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성경의 그 세 가지 위대한 직무들을 그의 공생애 내내 감당하셨다. 앞선 항목에서 간략하게 다룬 것처럼 칼빈의 “연합” 사상 관점으로 보면, 교회의 본질 중 하나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위임받은 공동체라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삼중직’의 역할을 통하여, 구약의 중재적 사역들을 완성하고, 성취하셨으며, 완전하게 이루셨다. 그 결과 그리스도는 우리 신앙인과 그의 몸 된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그의 은총을 입게 하는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것이다. 더 나아가 칼빈은 그리스도의 직분이 우리 신자와 교회에게 ‘그분과의 연합’을 통하여 ‘위임’됨을 강조하였다.⁹⁰⁾ 그것은 다시 말해 우리 신자와 교회가

89) *Institutes*, 2.15.1–6.

90) *Institutes*, 2.15.2; 2.15.6. 칼빈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 관점으로 그의 “그리스도의 삼중직론”을 다루었다고 주장하는 직·간접적인 연구는 얼마든지 발견된다. I. John Hesselink, *Calvin’s First Catechism: A Commentary*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7), 118–21, 126; Michael S. Horton, *Lord and Servant*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5), 222; Wilhelm Niesel, *Die Theologie Calvins* (München, Germany: Chr. Kaiser Verlag München, 1957), 9–22; 한국칼빈학회 편, 『칼빈 신학과 목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44–51, 337; 유창형, 『존 칼빈의 성화론』 (용인: 도서출판 목양, 2009), 54–8, 195; 정성욱, 『칼빈과 복음주의 신학』, 김찬영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1), 189–211.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이룬 결과, 그리스도의 선지자, 왕, 그리고 제사장직이 우리 신자와 교회에게 위임되었음을 의미한다(참고, 엡 4:11-12; 계 1:6, 5:10; 벧후 2:9).⁹¹⁾

실제로 칼빈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삼중직 위임을 그의 신학 작품들 안에서 상당히 빈번하게 반복하여 강조한다.⁹²⁾ 그런 그리스도의 삼중직 위임을 교회의 본질론에 적용하면 어떤가?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삼중직을 위임받은 존재로서, 세상과 문화와 사회 속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중보자적인 정체성을 가진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을 위임받은 우리 신자와 교회는 그의 선지자적 직무를 통해,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복음을 다양한 형태로 선포할 뿐만 아니라, 생명 살리는 건강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각종 문화와 소셜미디어 등 까지도 선도하는 존재로 나아가야 한다. 한편,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림으로써 죄인 된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화해시키심으로 화평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엡 2:14), 성령을 통해 그의 몸인 교회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후 5:18). 그런 맥락에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위임받은 교회는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현장의 중심적 위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반대로 주님께서 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세상 곳곳에서 적극적으로

91) Robert A. Peterson, *Calvin and the Atonement* (Fearn, Ross-shire: Mentor, 2009), 124; Dennis E. Tamburello, *Union with Christ: John Calvin and the mysticism of St Bernard*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4), 86; Billings, *Union with Christ*, 161.

92) *Comm. on Mal. 2:9; Comm. on Zech. 3:4; Institutes*, 2.15.1; 2.15.3; 2.15.4; 2.15.5; 2.15.6; 3.1.1; 3.6.2; 3.11.10; 3.15.8; 4.8.1; 4.15.22; 4.18.14; 4.19.25; 4.19.28.

구현하는 중보자적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왕직을 위임받은 우리 신자와 교회는 그의 왕적 직무를 통해, 죄악으로 오염된 탐욕적이며 세상적인 가치관과 악의 세력에 영향을 받는 각종 왜곡된 문화와 사상과 풍조에 대하여 대항하고, 성령을 통한 영적인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고 확장되는 일에 헌신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

V. 나가는 글

본 연구의 출발점은 ‘교회의 본질론’과 ‘교회론의 다양한 주제들’을 칼빈의 ‘우리 신자 또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 관점으로 다시 읽기를 통해 분석하는 것으로부터이었다. 그것은 서론 안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 교회의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하나의 신학적 원리의 실마리를 제안하려는 연구 목적과 연관성을 가진다. 결국 교회의 본질적 회복은 그 무엇보다도 교회의 본질과 그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가를 먼저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칼빈의 ‘교회의 본질론’과 ‘교회론의 다양한 주제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또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 사상과 긴밀한 관계 안에서 이해되고 해석되었다. 그 연합 사상 중심으로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과 “실재적 연합”을 한 공동체이며, 그것은 동시에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을 한 공동체라는 본질적 의미가 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한 그의 몸으로서, 그의 직분을 위임받은 본질적인 정체성도 가진다. 칼빈은 그 연합 사상을 가지고 교회의 진정한 본질, 정체성, 그리고 기능과 역할 뿐만 아니라, 그 교회론 안에 있는 다양한 신학적 주제들을 이해하고 해석했

다. 한마디로 칼빈의 교회론 안에서 그 연합 사상이 하나의 중요한 신학적 원리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러나 본 논고는 다음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본 연구가 교회의 신뢰 회복이나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실천론적 접근을 처음부터 시도한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비록 그 실천론적 제안을 간략하게나마 부분적으로 시도는 했으나, 그럼에도 그것을 보다 더 구체적이며 체계적으로 다루지 않은 점은 분명 한계인 점이 명료하다. 둘째로, 앞선 한계점과 관련하여 칼빈 시대의 교회적 상황과 현시대의 교회적 현실을 더욱 체계적으로 비교하여 교회론의 실천적 주제들을 다루지 못한 점도 하나의 한계일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본 논고는 다음의 향후 연구를 제안한다. 첫째로, 교회론의 실천적 접근을 위해 칼빈의 *교회 일치 신학*을 체계화하여 발전시키면 유익할 것 같다. 물론 이 주제와 관련하여 칼빈의 그 연합 사상을 적용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국 교회의 하나 됨을 추구하는 실천적 연구에 하나의 원리가 될 것이다. 둘째로, 칼빈의 실제적인 목회에서 그 연합 사상이 적용된 사례나 자료들을 연구하여, 현시대의 목회에 실천적으로 비교 적용하는 연구를 시도하면 유익할 것 같다.

하스(Günther H. Haas)에 따르면 칼빈이 강조한 그 연합 사상은 “교회의 모든 참된 지체들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⁹³⁾ 왜냐하면 그 “연합” 사상에 기초를 두고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교회 생활의 중요한 핵심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한편, 칼빈의 교회론은 재세례파 등 몇 진영들과의 논쟁 속에서 발전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철저히 성경적인 교회론을 발전시킨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의 교회론

93) Günther H. Haas, “Ethics and Church Discipline,” in *The Calvin Handbook*, ed. Herman J. Selderhuis, trans. Henry J. Baron, Judith J. Guder, and Randi H. Lundell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2009), 340–341.

은 당시 종교 개혁 운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맛을 잃은 소금(마 5:13)처럼 대사회적인 신뢰도의 하락이라는 위기 현상을 보이는 이 시점에서, 그리스도 또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한 공동체로서 교회 본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분을 닮아, 그분과 한 몸을 이루어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 교회의 대사회적 신뢰 회복의 한 실천적 원리를 칼빈의 이 “연합” 사상 중심으로 ‘교회의 본질론’과 ‘교회론의 다양한 주제들’ 다시 읽기를 통해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신학적 원리를 응용하여 교회와 본질 이해와 함께 교회변혁을 위한 하나의 실천론적 방법을 제시하는 후속 연구가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차 문헌

-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ited by John T. McNeill. Translated by Ford Lewis Battles, 2 vols.,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Series nos. 20-1.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 . *Sermons on the Epistle to the Ephesians*. Translated by Arthur Golding. London, 1577. Reprint,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73.
- . *Sermons on the Acts of the Apostles*. Translated by Rob Roy McGregor. Reprint,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2008.
- . *Commentary on the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Romans*. Translated and edited by Rev. John Owen. Edinburgh: The Calvin Translation Society, 1848.
- . *Commentary on the Epistles of Paul the Apostle to the Corinthians*. Translated by Rev. John Pringle. Vol. 1. Edinburgh: The Calvin Translation Society, 1848.
- . *Commentary on the Epistles of Paul to the Galatians and Ephesians*. Translated by Rev. William Pringle. Edinburgh: The Calvin Translation Society, 1854.
- . *Commentary on the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Hebrews*. Translated and edited by Rev. John Owen. Edinburgh: The Calvin Translation Society, 1853.
- . *Johannis Calvini Opera Selecta*. Edited by Peter Barth, Wilhelm Niesel, and Dora Scheuner. 5 vols. Munich: Christian Kaiser, 1926-52.

2차 문헌

- 강병오. "한국 개신교의 사회적 신뢰 실추 원인과 대책." 「신학과선교」 제41 권 (2011년 11월): 61-84.
- 김남석. "한국교회 공공성 회복을 위한 목회신학 연구: 목회자의 공적 윤리의

- 식 고양의 필요성과 과제를 중심으로.” 「신학연구」 제70권 (2017년 6월): 155-81.
- 김병연.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목적, 방법론과 결과.” 「2008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발표 세미나」,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편. 서울: 기윤실, 2008.
- 김요섭. “교회 개혁 원리로서의 오직 성경으로(Sola Scriptura): 교회의 교리제정 권세에 대한 칼빈의 이해 연구.” 「신학지남」 제82권, 제4호 (2015년 12월): 181-215.
- 남태욱. “21세기 한국교회 갱신을 위한 윤리적 과제: 2008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 조사를 중심으로.” 「성경과신학」 제53권 (2010년 5월): 171-201.
- 박현신. “포스트코로나 시대 교회의 위기와 대안적 방향: 실천신학적 조망을 중심으로.” 「복음과실천신학」 제65권 (2022년 11월): 261-301.
- 성호숙.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한 기독교 인성교육에 관한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제56집 (2008년 12월): 369-402.
- 신문계. “마르틴 루터의 십자가 신학에 직면한 한국교회.” 「신학과목회」 제49권 (2018년 5월): 185-219.
- 신승범, 이종민. “기독교 청년들의 교회를 떠나고 싶은 이유에 관한 질적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제66집 (2021년 6월): 273-307.
- 신원하. “조월과 진리, 주변에서 중심으로: 한국 교회 위기의 본질과 극복을 위한 신학 윤리학적 분석.” 「기독교사회윤리」 제26집 (2013년 8월): 179-215.
- 양병모. “한국교회가 직면한 문제의 목회신학적 대응방안: 거시적 요인과 목회패러다임을 중심으로.” 「복음과실천신학」 제50권 (2019년 2월): 172-211.
- 양진영.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논의: 구원론과 교회론의 연속성의 관점에서.” 「한국개혁신학」 제79집 (2023년 8월): 276-306.
- 용환규. “한국교회 정체성 회복을 위한 목회패러다임의 전환.” 「복음과실천신학」 제35집 (2015년 4월): 225-251.
- 장신근. “공적실천신학으로 본 한국교회의 현실과 개혁과제.” 「장신논단」 제51권, 제5호 (2019년 12월): 247-75.
- 정원범. “존 하워드 요더의 관점에서 본 한국교회의 신뢰도 위기와 그 대안.”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100집 (2016년 4월): 195-226.

- 정희완. “신학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성찰: 한국적 사회참여 신학을 위하여.” 「신학전망」 제177권 (2012년 6월): 146-95.
- 최광희.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 회복을 위한 설교 비평 연구.” 「복음과실천 신학」 제69권 (2023년 11월): 133-158.
- 최무열. “한국교회의 위기 극복과 대사회적 신뢰성 회복방안으로서의 디아코니아 활용에 관한 소고.” 「신학과 실천」 제47권 (2015년 11월): 519-49.
- 황대우. “칼빈의 개혁 원리와 한국교회 개혁: 성경의 원천으로 돌아가자! (Ad Scripturae fontes).” 「장신논단」 제51집, 제1호 (2019년 3월): 93-119.
- 현유광. “침체된 한국교회의 활력회복 방안에 관한 연구: 교회당 문턱은 낮추고, 교회 문턱은 높여라!” 「복음과실천신학」 제33권 (2014년 11월): 224-261.
- Alexander, Eric J. “The Supremacy of Jesus Christ.” In *John Calvin: A Heart for Devotion, Doctrine, and Doxology*, edited by Burk Parsons, 109-118. Lake Mary, FL: Reformation Trust, 2008.
- Armstrong, Brian G. “The Nature and Structure of Calvin’s Thought According to the *Institutes*: Another Look.” In *John Calvin’s Institutes His Opus Magnum*, 55-61. Potchefstroom University, 1986.
- Billings, J. Todd. *Calvin, Participation, and the Gift: The Activity of Believers in Union with Chris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 . *Union with Christ: Reframing Theology and Ministry for the Church*. Grand Rapids, Michigan: Baker Academic, 2011.
- Canlis, Julie. *Calvin’s Ladder: A Spiritual Theology of Ascent and Ascension*.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10.
- Choi, S. R. “Union with Christ? Re-reading Calvin as Constructive Proposal for Korean Calvin Reception.” PhD dissertation, Stellenbosch University, 2015.
- . *Union With Christ: Re-reading Calvin in Korean-American Reformed Theology*. Eugene, OR: Wipf and Stock Publishers, 2023.
- D’Assonville, Victor E. “Exegesis and Doctrina.” In *The Calvin Handbook*,

- edited by Herman J. Selderhuis, translated by Judith J. Guder, Henry J. Baron, Randi H. Lundell, and Gerrit W. Sheeres, 378–384.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9.
- Evans, William B. *Imputation and Impartation: Union with Christ in American Reformed Theology*. Eugene, OR: Wipf and Stock Publishers, 2008.
- Fahim, Sherif A.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and Union with Christ: Fresh Insights from Calvin, Westminster, and Walter Marshall*. Eugene, OR: Wipf and Stock Publishers, 2022.
- Freudenberg, Matthias. “Calvin’s Reception in the Twentieth Century.” In *The Calvin Handbook*, edited by Herman J. Selderhuis, translated by Judith J. Guder, Henry J. Baron, Randi H. Lundell, and Gerrit W. Sheeres, 496–505.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9.
- Gamble, Richard C. “Calvin as Theologian and Exegete: Is There Anything New?” In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Calvin’s Theology: Volume 7*, edited by Richard C. Gamble, 44–60. New York: Garland Publishing, Inc, 1992.
- Göhler, Alfred. *Calvins Lehre von der Heiligung*. München: Kaiser, 1934.
- Haas, Günther H. “Ethics and Church Discipline.” In *The Calvin Handbook*, edited by Herman J. Selderhuis, translated by Judith J. Guder, Henry J. Baron, Randi H. Lundell, and Gerrit W. Sheeres, 332–344.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9.
- Selderhuis, Herman J. “The Institutes.” In *The Calvin Handbook*, edited by Herman J. Selderhuis, translated by Judith J. Guder, Henry J. Baron, Randi H. Lundell, and Gerrit W. Sheeres, 199–206.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9.
- Hesselink, I. John. “Calvin’s Theology.”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John Calvin*, edited by Donald M. McKim, 74–92.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 _____. *Calvin's First Catechism: A Commentary*.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7.
- Holloman, Henry W. "Sanctification." In *Understanding Christian Theology*, edited by Charles R. Swindoll, Roy B. Zuck, 964-969. Nashville, Tennessee: Thomas Nelson Publishers, 2003.
- Horton, Michael S. "Calvin's Theology of Union with Christ and the Double Grace: Modern Reception and Contemporary Possibilities." In *Calvin's Theology and Its Reception: Disputes, Developments, and New Possibilities*, edited by J. Todd Billings and I. John Hesselink, 72-94. Louisville, Kentucky: John Knox Press, 2012.
- Kennedy, Kevin Dixon. *Union with Christ and the Extent of the Atonement in Calvin*. New York: Peter Lang, 2002.
- Kolfhaus, Wilhelm. *Christusgemeinschaft bei Johannes Calvin*. Neukirchen: Kr. Moers; Buchlandlungen des Frziehungvereins, 1939.
- Leith, John H. "Calvin's Theological Method and the Ambiguity in His Theology." In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Calvin's Theology: Volume 7*, edited by Richard C. Gamble, 264-275. New York: Garland Publishing, Inc, 1992.
- Lillback, Peter A. "Ethics: The Christian Life and Good Works according to Calvin (2.10-11)." In *A Theological Guide to Calvin's Institutes: Essays and Analysis*, edited by David W. Halland Peter A. Lillback, 168-204. Phillipsburg, New Jersey: P&R Publishing Company, 2008.
- Milner, Benjamin Charles., Jr. *Calvin's Doctrine of the Church*. Leiden: E. J. Brill, 1970.
- Niesel, Wilhelm. *The Theology of Calvin*. translated by Harold Knight.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 House, 1980.
- Parsons, Burk. "The Humility of Calvin's Calvinism." In *John Calvin: A Heart for Devotion, Doctrine, and Doxology*, edited by Burk Parsons, 1-17. Lake Mary, FL: Reformation Trust, 2008.
- Partee, Charles. "Calvin's Central Dogma Again." In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Calvin's Theology*, edited by Richard C. Gamble, 7 vols, 75-83. New York: Garland Publishing, INC, 1992.

- _____. *The Theology of John Calvi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8.
- Plasger, Georg. "Ecclesiology." In *The Calvin Handbook*, edited by Herman J. Selderhuis, translated by Henry J. Baron, Judith J. Guder, and Randi H. Lundell, 323–32.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2009.
- Selderhuis, Herman J. *Calvin's Theology of the Psalms*. Grand Rapids, Michigan: Baker Academic, 2007.
- Venema, Cornelis P. *Accepted and Renewed in Christ: The Twofold Grace of God and the Interpretation of Calvin's Theology*.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7.
- Wallace, Ronald S. *Calvin's Doctrine of the Christian Life*. Tyler, TX: Geneva Divinity School Press, 1982.
- Weber, Otto. *Die Treue Gottes in der Geschichte der Kirche*, Gesammelte Aufsätze II.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des Erziehungsverein, 1968.
- Wendel, François. *Calvin: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His Religious Thought*. translated by Philip Mairet. London: Collins, 1963.
- Williams, Stephen N. "Living in Union with Christ according to John Calvin." In *Living in Union with Christ in Today's World: The Witness of John Calvin and Ignatius Loyola*, edited by Brendan McConvery, 11–30. Dublin, Ireland: Veritas Publications, 2011.

【 Abstract 】

Rereading “The Essence of the Church’ and “Various Themes in Ecclesiology’?: Focusing on Calvin’s “*Ūnĭo cum Christo*”

Choi, Sung Rual

This study analyzes the ‘essence of the church’ and ‘various themes of ecclesiology’ from the perspective of Calvin’s “union with Christ” (*Ūnĭo cum Christo*) and “union with the Triune Go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not to specifically address a practical approach to restoring trust in the church or overcoming crises through Calvin’s theology. Rather, it aims to propose a fundamental theological principle for church transformation through Calvin’s understanding of the ‘essence of the church’ and ‘various themes of ecclesiology.’

Calvin’s ecclesiology encompasses diverse theological themes, including not only the essence of the church but also sacraments, worship, prayer, offices, discipline, church unity, and the communion of saints (*koinonia*). These diverse theological themes are understood and interpreted in his theology through their close connection to the ‘union with Christ’ and ‘union with the Triune God’ thought.

The claim that the “union” thought, which is closely related to ecclesiology, is a “central doctrine” or “core motif” of Calvin’s theology, has become one of the most interesting theological debates of recent times. The pros and cons of this debate remain tense and ongoing. One of the doctrines most frequently discussed in Calvin’s theology in close connection with the “union” thought is none other than ecclesiology. From this perspective, this study attempts to understand and interpret the ‘essence of the church’ and ‘various themes of ecclesiology’ by

analyzing them within Calvin's "union" thought. To facilitate a more systematic analysis and interpretation, the scope of this study is limited to the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which can be considered a summary of his theology.

This study is expected to offer a theological principle and research method for various theological and practical studies addressing the nature, function, and role of the church. Meanwhile, I hope that the research method of this study will provide a starting point for a fundamental theological principle for practical research related to restoring social trust in the Korean church and overcoming crisis situations.

Key Words : Calvin's ecclesiology, *Únŏ cum Christo*, Union with the Triune God,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